자기는 죽어도 자식을 살려 내려는 부모의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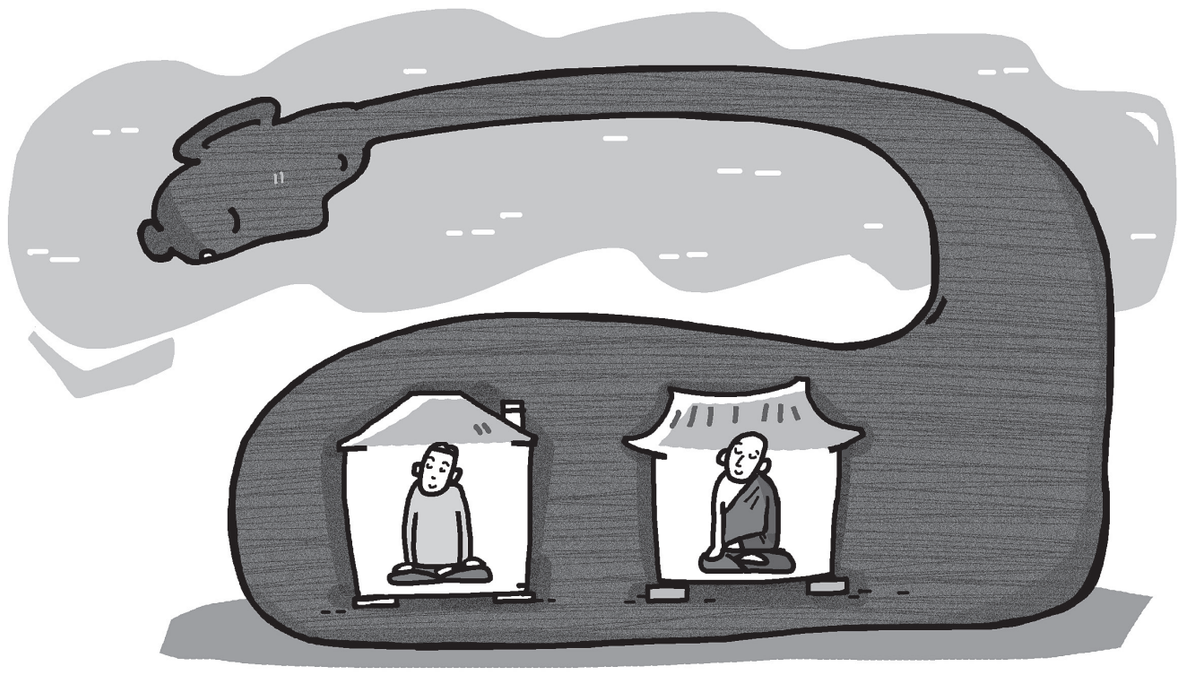
우리가 이렇게 매일 여러분과 같이 토론 겸 생활면에서 불교가 어떤 거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고 또 진실한 불법을 알 수 있을까 하여 항상 이렇게 같이 한마음으로서, 동체로서 한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 속에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항상 뒤지고, 도무지 이익이 모두 각자에게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법은, 부처님 법이 다 하니까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거를 부처님 법인 줄 아시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지금 생활하시는 것이 부처님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정 가정에서 자녀들을 기르고 또 부모를 모시고 이렇게 살아나가는 생활면에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섯 식구가 살든 열 식구가 살든 또 아파트에서 살든 아파트 아닌 데서 살든, 공기라는 이 자체, 습도력이라든가 바람, 온도, 모두 이런 문제로 한데 합쳐진 그 공기에 의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지만 살기도 합니다. 공기가 없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죽기도 하는가 하면 살기도 해요. 그것을 우리는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해서는 아니 돼요. 한 가정 가정에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애들이 병이 나고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우리 이 한 점의 마음 속에 모든 것을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보배가 있으니, 보배로운 한 점이라는 얘깁니다. 그럼 일체 만법의 응용은 그 한 보배의 한 지혜로운 무기로써 모든 것이 해결이 나는 거죠.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냥 우글우글하거든. 생명체들이 우글우글하죠. 또는 습도나 온도, 바람, 바람에 의해서도 어떠한 나쁜 세균의 생명이 나에게 접근할지도 모르는 이런 문제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세균의 생명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영계 이런 문제, 즉 말하자면 인간이 청골이라면 청골의 영계에 유전이 되는 수도 있고, 백골이라면 백골에 유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문제가 바로 이런 데서 오는 거랍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 하면 경이나 읽어야 부처님 법인 줄 알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생활이 바로 부처님 법이라는 거, "생활을 어떻게 응용을 하고 어떻게 해 나가며, 우리가 그 만법을 응용하는데 어디서 이 만법이 다 나오는가? 이 한 점을 발견하라."


그림 · 최주현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도란 말입니다. 도라고만 할 게 아니라 도심(道心), 그 심을 밝혀라 이겁니다.

내 방에서도 어떤 때는 우리 스님이 "아이고, 습기가 없어서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저, 물 나오는 거 있지? 그걸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그거 다 필요 없다. 나에게는 다 필요 없다." 이럽니다. 내가 맞추는 것이지, 내가 내 몸에 대해서 더 잘 알지 남이 더 잘 아는 게 아니야. 그리고 습도를 맞추는 것도 그것이 나를 아는 게 아니다.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내가 맞춰야지 그게 맞춰 주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 생각해 보실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다고 해서 그걸 해놔 가지고 애들이 병이 나는 수도 많고 어른이 목이 잘못되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깊이 생각하셔서 이런 물질로만 돌아가지 마시고 한생각에 한 점의 그 근원을 생각하면서, 그 근원이 바로 만법에 응용이 되고 활용이 된다는 거, 그것을 아시면서 믿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넓히세요.

그 지혜는 바로 여러분이 만법을 사용하는 데에 다양하게, 찰나찰나에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공기의 습도, 모든 것을 한데 합쳐서 본다면 지금 이렇게 이 방에 앉아 있는 우리 인간의 수효보다 공기가 더 중력이 나간다는 뜻입니다. 공기가, 모든 공기의 그 습도력과 온도력이 인간보다도 더 중력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맞춰서 나가야 하는데 이거를 쓸 줄 모르면, 그 습도력이나 모든 것이 이 인간보다도 더 높아진다면 거기에서 이 피가 순환이…, 말하자면 습도가 말라요. 아시겠어요?

또 우리가 이 보배로운 내 마음을 가지고서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전념하고 이것을 사용하는 거라. '아, 이건 좀 쌀쌀하구나.' 이렇다면 여기다 탁 저거 하고 이 행동으로도 이것을 잘 이렇게 맞춰 놓으면 아주…. 무슨 물질을 맞춰 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자가발전소만 되는 게 아니라 원자력도 되고, 일체 만법의 근원의 보배도 될 수 있고 무기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 사는 데 응용이 되고 이익이 되고, 이 부처님 법이라는 것이 천차만별로 무한의 보배가 된다는 얘깁니다.

부처님 법을 배우고 또는 불교를 믿는다 하면 그냥 절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불법인 줄 알거든, 모두. 이거 참, 사실 얼마만큼 고쳐야 할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배우는 사람은 어떠해서 그렇게 배우며,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르치나. 모두 학식이 높아서 그렇게 가르치나, 그렇지 않으면 도가 높아서 그렇게 가르치나. 그렇지 않으면 부처님을 너무 믿어서 그렇게 가르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부처님이 부모라면 진실한 마음으로 아끼는 그 마음, 아주 그걸 가져야지, 겉으로만 얼렁얼렁하고서 속으로는 모시기 싫고 모든 게 그렇다면 부모 모시나 마나야. 나만 알고 말이야, 응? 그러면 물질을 아무리 갖다 놔도…. 부모가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부처님 법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라고 그러거든. 자기는 죽어도 자식을 살려 내려고 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그게 부처님 마음이란 말입니다. 부모가 당신네들을 고생 안 시키고 또 당신네들을 잘 가르치고 부자를 만들어 주고 재산을 많이 주고 그래서 위대하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아니, 부모는 잘 먹고 자식은 잘 못 먹였습니까? 부모는 잘살면서 자식을 못 입히고 고생을 시켰습니까? 자기가 덜 먹어 가면서라도 자식은 먹이려고 했고, 나는 못 배웠어도 자식을 가르치려고 했었고, 또 나는 고생을 하더라도 자식을 고생 안 시키려고 했던 그 마음은 부모라면 누구나가 다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젊은 부모나 늙은 부모나, 아마 예전의 부모나 지금 부모나 똑같을 겁니다.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에요. 부처님이라는 이름이 위대해서 부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라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이, 그 한 점의 마음이 모든 것에 겸손하고, 얕은 걸 봐도 불쌍한 걸 봐도 높은 걸 봐도, 부처님을 봐도 부처님을 능가할 수 있어야 한다. 치고 나가라! 또 은사나 이런 걸 봐도 거기에 말려서도 안 되고 착을 둬서도 아니 되느니라. 이런 것은 어떠한 점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지극한 한 점에, 그 빈 한 점에, 그릇이라는 언어도 붙지 않는 그 한 점에다가 만약에 그 모두를, 내가 사랑한 그 마음을 가볍게 내 한마음에다 둔다면 그 한마음에 내 몸도 그 몸이요, 내 마음도 그 마음이요, 내가 못 먹으면 그분도 못 먹을 것이요, 내가 잘 먹으면 그분도 잘 먹을 것이요, 일체가 나로 하여금 모두가…. 그래서 "일체 만물만생을 떡 하나를 가지고 먹이고도 그 떡 하나는 되남았느니라." 하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깝게 두고도 그냥 "부처님, 부처님" 하고선 야단들을 하니 자기가 부처가 돼 봐야 부처님의 그 마음을 꿰뚫어 알 수 있는 거지, 내가 알지 못하고 어떻게 아느냐 이거야. 그래 이런 말이 있죠. 너도 자식을 낳아 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요. 그것을 속가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해 나가는 말로 생각하지 말고 그걸 한번 넓혀서, 부처님의 불도로서 한번 귀합을 시켜 봐라 이겁니다. 그런다면 그 마음이나 그 마음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49년 설법하면서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또는 무루의 무생을 만난다 할지라도 거침없이, 마다하지 않고 하신 분이 그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이 길을 인도해 주신 길잡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선배입니다. 그러면서도 선구자입니다. 그분이 안 계실 때도 이 진리는 있었지마는 그분이 처음 그것을 발견해서 여러분한테 가르쳐 준 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 없는 밑거름이 되고 대들보가 되고, 뿌리 없는 기둥이 돼 버리고, 음지 양지 없는 한나무가 돼 버렸습니다. '나무' 하면 나무를 나무

☞ 18면으로 계속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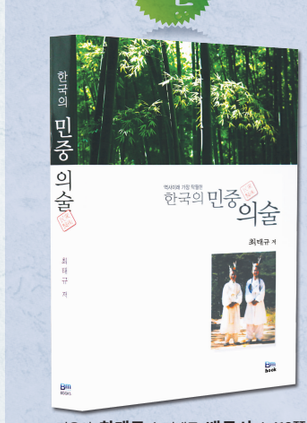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